

청주의 가을 문화 테마 직지심체요절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의 정신을 오늘에 이어나가, 새로운 문화 창조의 기반으로 자리매김 하려는 행사가 잇달아 열린다.

직지디지털연구소가 추진하는 '산사에서 열리는 직지체험축제'와 청주시에서 주관하는 '청주인쇄출판박람회'가 바로 그것이다. 이 두 행사 모두 직지를 21세기의 새로운 문화상품으로 인식하고,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16일~10월 3일까지 열리는 '산사에서 열리는 직지체험축제'는 직지신문발행, 직지문화상품 개발 등 직지관련 문화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직지디지털연구소가 청주 대한불교수도원(직지선원)과 공동으로 준비한 행사다. 세계적 기록유산인 직지에 대한 시민들의 정확한 이해와 인식을 확대하기 위해 일반 시민과 불교의 입장에서 다차원적으로 해석하고 준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직지디지털연구소는 이번 체험축제에서 직지캐릭터를 개발해 첫선을 보인다. 직지심체요절의 편자자인 백운화상, 금속활자 제작을 주도한 석찬과 달담, 금속활자 제작비용을 제공한 모덕 스님, 직지홍보알리미 디지털직지 지지, 아날로그직지 아지, 직지책을 캐릭터로 만든 책지, 흥덕사 복원을 꿈꾸는 흥덕사 고인쇄박물관, 철당간 등 20여종에 달한다. 직지디지털연구소는 이들 캐릭터를 바탕으로 10여종의 직지발명노트, 직지캐릭터노트, 직지관찰노트 등의 개발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행사기간동안 직지체험 도량으로 운영되는 대한불교수도원 경내에서는 직지 관련 서적과 인물자료가 전시되며, 직지 관련 인물 스케치 행사도 매일 선보인다. 특히 이번 체험축제에서는 매주 토요일 오후 3시~4시, 일요일 11시~12시 직지시민선원을 운영해 <직지심체요절>에 담긴 선사상을 이해하고, 실제 참선수행법도 익힐 수 있도록 했다. 축제기간 중인 21일 오전 10시에는 직지 찾기와 흥덕사 복원을 기원하는 법회가 열릴 예정이며, 30일 토요일 오후 3시에는 직지사경법회도 봉행하는 등 지역 불교계와 불교단체도 적극 참여한다. (0502-0114-119)

청주인쇄출판박람회(www.cippexpo.com)는 문자문화의 지난 천년을 돌아보고, 새 천년의 문자문화를 일깨워가자는 의도에서 22일~10월 22일 청주예술의전당 일원에서 열린다.

16일~10월3일 직지체험 축제

매주 토·일 직지시민선원 운영

21일 직지찾기·흥덕사 복원 기원

22일~10월22일 인쇄출판박람회

인쇄·출판·정보통신 총망라

직지제작 과정 소개 등 다채

'직지와 고인쇄' '문자 그리고 인쇄출판' '전자출판과 정보통신' '디지털 그리고 미래' 등 4개의 테마를 통해 세계최고의 금속활자본을 찍어낸 과정으로서 인쇄와 출판 그리고 정보통신 등을 총망라한 지식정보의 가치와 비전 제시를 한다는 계획이다.

청주고인쇄박물관에 개설되는 고인쇄마을에서는 직지의 제작과정 및 흥덕사지 유물전, 동·서양의 고인쇄문화 비교전, 금속활자 및 목판의 인쇄과정, 금속활자본 직지 재현과정을 소개한다. 또 인쇄체험마을에서는 대형 그래픽 패널과 활자모양의 입체 사진들을 통한 국내외 인쇄역사년표 비교로 세계 인쇄의 역사를 살필 수 있게 하는 한편 한지와 현대종이, 먹과 잉크, 금속활자 등 직지 탄생의 배경이 된 제지술 제묵술 제금술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제시된다.

<직지> 하권의 마지막장을 퍼즐로 구성한 직지퍼즐 인쇄, 목판본과 금속활자본 구분법 익히기 등도 운영된다. 금속활자, 직지타본, 한지, 붓, 베틀 등 한국의 전통인쇄출판 관련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연장도 마련했으며,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직지에 대한 이해를 넓혀줄 인형극 '직지가 어디 있니'도 선보인다. 이밖에 알파벳의 기초가 된 페니키아 문자에서 히브리 아랍 문자 등 쉽게 보기 힘든 희귀문자와 한글소리 문자의 원리, 훈민정음 이후 다양하게 변화해 온 한글꼴 등도 전시된다. (043-220-6851)

또한 청주인쇄출판박람회와 때를 같이해 22일~24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는 <직지심체요절>의 제작동기와 시대적 상황을 한국적 오페라로 형상화한 창작오페라 '직지'가 공연되는 등 직지를 테마로 한 문화행사들이 줄을 잇는다.

오페라 직지는 중국 원나라의 속국이 된 고려민중의 합창 '청산별곡'을 시작으로 <직지심체요절>을 만들 때 울려 퍼지는 합창 '청주의 하늘은 맑은데' 등 한국적 정서와 화음이 담긴 아리아와 장엄하고도 화려한 불교의식 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은자 기자(ejlee@buddhopia.com)



◇봉화골 칠발암 서연여래좌상.

변명환 사진전 '침묵의 소리'

사진가 변명환씨가 경주 남산을 카메라에 담은 '침묵의 소리' 사진전을 20일~26일 대구 고도갤러리에서 갖는다.

서라벌대학 사진영상과 부교수인 변씨는 이번 전시에서 '오산골 마애불 원경' '봉화골 칠발암 전경' '비룡굴 마애여래좌상' '부처굴 감실여래좌상' 등

문·화·단·신

독특한 시각에서 촬영한 남산의 부처님들을 40여점의 작품을 통해 선보인다. 흑백필름에 담긴 남산의 부처와 전경들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으로 표현되었다.

변교수는 전시에 앞서 지난 4일 경주남산사진전 <바위에 새긴 부처의 세계> 출판 기념식도 가졌다. 또한 경주 신라문화원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전시(www.silla.or.kr)도 열고 있다. (053)427-5190

부산 삼광사 천태합창제

목소리를 모아 부처님을 찬탄하고, 법계를 장엄하는 제3회 천태합창제가 26일 부산 삼광사 지관전에 열린다.

천태종 전국 42개 불교합창단이 참가해 실력을 겨룰 이번 합창제에는 천태법보존회 스님들이 특별출연해 법패를 선보일 예정이며, 삼광사 육법공양팀의 육법공양시연과 삼광사관현악단의 불교 관현악도 연주된다. (02)576-6401

황남채 판화전 '달빛을 찾아'

판화가 황남채씨의 '달빛을 찾아' 판화전이 15일~10월 7일 미국 시카고 선려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지에서 한국 불교문화와 전파해 온 선려사 국제불교운동본부의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황씨는 산과 강, 나무와 바위, 구름과 하늘을 소재로 참선과 명상, 평화와 행복의 메시지를 담은 작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영화 '최승희' 일본서 개봉

무용가 최승희의 파란만장한 생애를 다룬 영화 '전설의 무희 최승희'가 지난날 19일 일본 도쿄 이 와나미홀에서 개봉돼, 이날 하순까지 상영된다.

이 영화는 일본의 여성 영화 감독 후지하라 도모코씨가 99년 2월부터 1년여에 걸쳐 만든 다큐멘터리다. 영화는 한국 무용가 김매지씨가 일본 국립 근대미술관과 도쿄화랑 등에서 최승희를 모델로 한 그림을 찾은 것으로 시작돼, 무용가 최승희의 독특한 춤세계를 그림과 사진, 당시의 자료 등을 통해 조명한다.

21개 범종소리 들으니 그윽...맑고 깨끗...숙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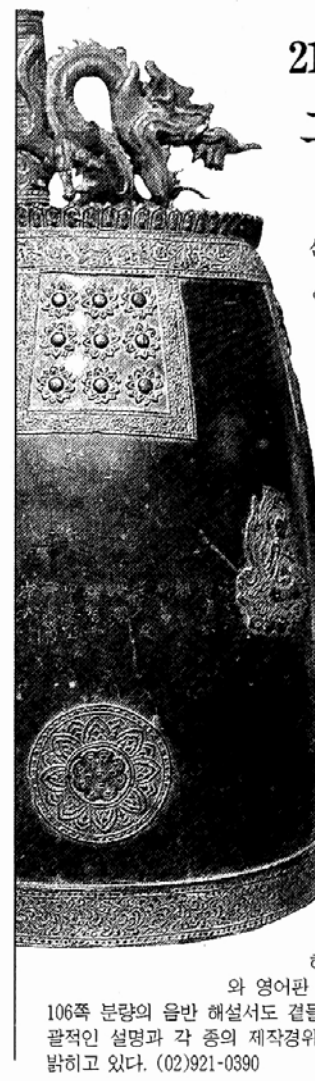
60년대 채록음반 복각 '신라범종'

산사의 어둠을 밝히는 범종소리를 들어보셨나요? 전국 유명 사찰의 다양한 범종소리를 생생하게 담은 CD 앨범 <신라범종(新羅梵鐘)>(신나라뮤직)이 나왔다. 직접 산사를 찾지 않고서는 들을 수 없는 오래된 범종의 소리를 한 장의 CD에 담은 이 앨범은 불자들에게는 신심을 증장시키고, 일반인에게는 우리 범종의 아름다운 소리를 감상할 수 있게 해 준다.

이 <신라범종>은 서양사학자였던 호 저규명박사(전 서울대 및 중앙대 교수)가 60년대부터 전국을 돌아다니며 채록한 범종소리를 한데 담은 것으로 신라시대의 3종과 고려의 6종, 조선시대 범종 11종 등 모두 21개 종의 소리를 실었다. 지난 1966년 조박사는 이 종소리들을 EP음반(LP판보다 작은 사이즈)으로 오아시스레코드사에서 발매했으나, 오랜동안 잊혀져왔다. 이것을 지난 96년 범허스님이 발굴해 내 79개 범종소리를 복각해 냈는데, 이번 앨범은 이 복각된 범종소리 가운데 일부 분이다.

지금은 실제로 들을 수 없는 것으로 협조하는 범종 가운데 가장 오래된 상원사종(국보 제36호), 예밀레종이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한 성덕대왕신종(국보 제29호), 옛 보신각종(보물 제2호)을 비롯 국보 보물급 범종들의 아름다운 울림을 감상할 수 있다.

이 앨범에는 성우의 해설을 담은 한국어판 CD와 영어판 CD를 함께 담고 있으며, 106쪽 분량의 음반 해설서도 곁들여 한국 범종에 관한 과학적인 설명과 각 종의 제작경위, 조형미, 음향미에 대해 밝히고 있다. (02)921-0390 이은자 기자



인도철학 배우며 문화기행

EBS '세상보기' 금요강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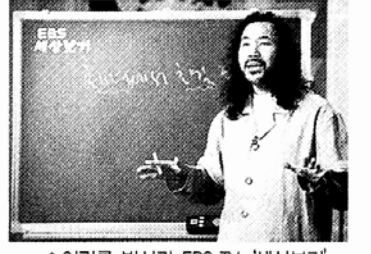
최근 몇년 동안 우리 사회에 인도 바람이 거세다.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도 열풍은 마친가지다.

과연 인도의 사상이 어떤 것이길래 전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걸까? 이 거품 인도철학 박사가 그 궁금증을 해결해 준다.

인도 델리대학에서 10여년 동안 인도 철학을 연구해 온 그는 지난날 31일부터 EBS-TV 프로그램인 '세상보기'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20분~저녁 8시)에 출연해 인도에서 살며 그들과 직접 생활해 온 경험담을 진솔하게 털어놓고 있다.

그는 첫 강의에서 "인도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나라다. 하지만 인도를 다녀온 일부 여행자들이 단순히 걸만 보고 가만히 다고 판단하는 등 편견에 갇혀있다. 그것을 벗겨 버리고 싶었다"고 출연 동기를 밝혔다. 이 프로그램에서 이박사는 체념과 초월의 무소유 철학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인도인들을 보여 우리 삶의 뿌리를 다시한번 되돌아 봐야 할 것이라고 충고한다.

순복회PD는 "여름 휴가를 다녀오지 못한 이들에게 명승지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



◇이거름 박사가 EBS-TV '세상보기'에 출연해 인도인들의 철학사상과 종교관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만 전문가의 안내로 일반인들이 평소 쉽게 다가갈 수 없는 문화여행을 안방에서 즐기게 하고 싶었다"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21일 방영될 '종교없는 종교, 힌두교'에서는 아침에 눈을 때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모든 일과를 신에게 의지하며 종교가 곧 삶인 인도인의 종교관이 소개된다. 또 28일에는 조각 예술의 백미라 일컫는 인도의 '카주라호 사원'과 '코나락 사원'의 벽화와 조각품을 통해 인도 예술에 녹아있는 철학적 의미를 살펴보는 '성(聖)에 이르는 예술 철학'이 방송된다.

김주일 기자(jkim@buddhopia.com)

개달은 여성, 사하조(Sahajo)의 '사랑의 경전'

구름 없이 내리는 소나기

신은 저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지만, 저의 스승님은 탄생과 죽음의 윤회로부터 저를 벗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신은 저를 욕망과 질병 속에 빠뜨렸지만, 저의 스승님은 저를 제자로 입문시켜서 이 모든 것들로부터 제가 빠져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신은 제게서 그 자신을 숨겼지만, 저의 스승님은 제게 그분을 비추어 볼 등불을 주셨습니다.

저는 저의 스승님, 차란다스의 발 아래 제 자신을, 몸과 마음과 영혼을 바칩니다. - 사랑의 경전 중에서 -

▶ 개달은 여성에 대한, 오소의 최초 강의로 국내에 처음으로 번역 출간되었다.

이 책은 개달음으로 가는 여성의 길에 대한, 여성이면서 구도자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사하조와 오소, 두 개달은 존재의 통찰을 담고 있어, 두 배로 풍요롭고 감동적이다. 또한 남성들에게는, 여성을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여성성'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책이다.

사하조(Sahaj)에 대해: 18세기 인도 라자스탄(Rajasthan) 지방에 살았던 신비로운 여성으로, 스승 차란다스(Charandas)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헌신으로, 개달음을 얻고 나서 아름다운 사랑의 시골을 지었다고 한다.

1·2권(신국판 변형) 각 권 7,500원

신인간을 위한 멀티미디어 쇼핑몰
www.goldenflower.co.kr



사이트 오픈 기념 특전

- ① 신비감이길도는 '신성무(神性舞)' 명상 음악 테이프 5,000원 무료 증정.
- ② 무료로 인도 '오소명상 휴양지(12월 13일)'를 다녀올 수 있는 후원 기회 부여.
 - 대상 - 투어 경비 전액 지원(140만원 상당)
 - 1등 - 투어 경비 50% 지원(70만원 상당)의 경품 다수
 - 추첨일 10월 16일 • 투어 일정: 12월 6일(수) - 12월 16일(월)
- ③ 투어 참가시, 투어비용 10만원 할인

행사 기간: 10월 15일까지

- 자세한 내용은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